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Online Social Relationship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윤현숙*, 이은경**, 범경아*, 김영자*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Hyunsook Yoon(hyyoon58@gmail.com)*, Othelia Lee(elee50@uncc.edu)**,
Kyoungah Beum(aaahhoo@naver.com)*, Yeongja Gim(yj961206@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 소재 복지관 2곳의 정보화교육프로그램(컴퓨터 기초반, 스마트폰반, 인터넷반)에 참여한 60세 이상 노인 총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Williams(2006)의 사회자본척도(On and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를 사용해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를 측정하였으며,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 건강관련 변수, 스트레스 변수를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도 온라인 결속형 사회관계는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 내 온라인 결속형 사회관계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IT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결속형 사회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노인의 우울감소에 도움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 중심어 : | 우울 | 온라인 사회관계 | 온라인 사회자본 | 결속형 | 가교형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in facilitating older adults' learning and adapt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s well as alleviating depressive symptoms.

At two senior community centers in South Korea, 144 adults aged 60 and older were recruited to participate in 12 week-long technology classes to learn computers, smart phone, and internet skills. At the baseline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assess their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online social relationships. Online and offline social capital (bonding vs. bridging) was assessed (Williams, 2006). Four-step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online social relationship on depression.

Findings suggested that depressive symptoms were associated with being widowed, being unemployed, and perceiving poor health status. Adding social capital variables in the final step, older adults who perceived less stressors, greater level of subjective health and high online bonding capitals had less depressive symptoms. Only online social bonding was significant in alleviating depression. This final model explained 48% of the variance. Computer/Internet training for older adults need to consider the significant role bonding social capital can play. The findings of this pilot study provided a preliminary base of knowledge about acceptable community-based interventions for older adults.

■ keyword : | Depression | Online Social Relationship | Online Social Capital | Bonding | Bridging | SNS |

* 본 논문은 2015년도 한림대학교 특성화 사업(HRF-S-23)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12월 21일

수정일자 : 2016년 01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2월 02일

교신저자 : 윤현숙, e-mail : hyyoon58@gmail.com

I. 서론

가족 체계의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지역사회는 더 이상 전통적인 사회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생활의 장소가 곧 소통과 정보를 제공했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생활의 필수 수단이 되고 있다. 2015년 10~30대의 인터넷 활용률은 99%로[1]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매개 인관관계(CMC :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은퇴와 가족해체, 노화와 노인성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기의 우울, 자살생각, 치매, 노인성 질환의 증가는 범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급격한 시대변화로 이전 세대와는 다른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대인관계가 필요하다. 최근 노년기의 물리적,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관계를 맺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즉, 온라인을 통한 사회관계 구축이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의 사회관계는 노화와 질환으로 외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역사회 및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활용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

이미 우리나라는 3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이 83.6%로 온라인 사회관계 형성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08년과 2014년의 인터넷 이용률에서 50대는 48.9%에서 80.3%로, 60대 이상은 19%에서 26.8%로 각각 증가하였다. 스마트폰 쇼핑은 최근 3년간 2.5배인 58.6%로 증가했으며,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은 2013년 60.1%에서 2015년 89.2%로 상승하였다[1]. 이러한 온라인의 이용증가는 인스턴트 메신저와 결제와 송금 시스템의 간편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적의 IT환경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정부 주도 정보화 교육의 확대실시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여전히 온라인과 스마트폰 사용에 긴장감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소통공간이자 사회관계망인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소외현

상을 경험하고 있다. 4대 정보소외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의 스마트 정보격차 수준은 2015년 기준 42.6%, PC 기반 정보격차는 23.4%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3].

노인은 신체 노화로 인해 행동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4]. 즉, 인터넷에 가장 취약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복지수요 충족에 가장 적합한 사회계층이 노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노인이 온라인을 통해 기존의 인간관계는 강화하고, 온라인 사회참여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될[5]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인터넷 활용은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6], 생활만족과 자아효능감[7], 삶의 질 향상과[8] 대인관계, 사회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 또 이동의 제약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여가참여와 정보교환, 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다[10]. 노년기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사회관계를 강화시켜 생활만족이 향상되었다[11].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의 이용이 결속형, 가교형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4]. 이처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사회관계는 오프라인 관계보다 쉽고 큰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다수의 약한 유대(Weak-tie)를 증가시키고 유지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결속형과 가교형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뉴미디어의 이용에 대한 연구로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15], 청·장년층[12] 대학생[16] 시각 장애인[17] 등이 있으며, 노인의 사회자본에 관련된 연구로는 자존감, 심리적 복지감[17], 사회자본과 우울증에 대한 관계[18] 등이 있다.

이처럼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노인의 정보화 인식이나 정보화 교육의 효과성, 인터넷 활용의 만족도, 사회자본과 뉴미디어와의 영향에 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정보화 시대에 결속형, 가교형 온라인 사회관계가 노인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 안에서 사람들이 갖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변동정도로 구분한 결속형(Bonding) 사회자본과 가교형(Bridging) 사회자본의 개념을 통해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를 측정 한 후,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결속형, 가교형 사회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년기 우울과 영향 요인

우울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부정적 심리현상으로[19-21] 근심, 침울함, 무력감,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기분장애를 일컫는다[22]. 노인의 우울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포함한다[23].

우울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정도가 높고[23][24] 특히 여성노인의 우울이 남성노인의 우울보다 높게 나타나고[25] 형태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26].

노인 우울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유배우자 여부, 건강상태, 경제상태, 종교 등이 있으며[27-29], 그 중 배우자 사별은 우울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보고된다[30]. 심리적 요인으로는 생활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31],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지지[32][33], 사회 활동[9] 등이 있으며, 생활만족도[34], 삶의 질, 자살생각 등이 결과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전기제, 건강상태, 은퇴, 역할상실, 기능감퇴, 질병 발생, 경제활동[35] 중단 및 악화, 일상생활 수행능력[36] 등을 제시하고 있다.

1.1 우울과 건강관련 변수

노년기의 삶의 질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할 것은 건강으로[37] 특히 우울은 노인의 심리적 건강지표로 중요한 정서적 변수이다. ADL과 객관적 건강지표(CIRS: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주관적 건강상태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노년기의 건강이상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서적·사회적 문제도 야기하는 데 가장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바로 우울이다. 질환을 가질수록[39], 신체적·기능적·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8][40][41].

1.2 우울과 생활스트레스

노인은 신체기능감퇴, 질병, 배우자의 죽음, 사회고립, 고독감, 은퇴로 인한 경제력 약화 등의 생활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노년기 스트레스의 특징은 각 영역별 스트레스 요인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한 요인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42]. 또 노인의 스트레스는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와 우울,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쳐, 결국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생각을 높게 한다고 하였다[43].

2. 온라인 사회관계와 결속형·가교형 사회자본

온라인 사회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회관계에서 자원을 교환하고 획득하는 개념인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통해 온라인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계해주는 매개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44].

사회자본은 인적·물적 자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지칭한다[45]. Bourdieu[46]는 사회자본의 속성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시했으며, Coleman[47]은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정의하면서 사회자본의 속성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네트워크 안에서 사람들이 갖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변동정도로 사회자본을 구분하는 Putnam[45]의 분류에 따라, 결속형(bonding)사회자본과 가교형(bridging)사회자본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서로 다른 규범과 네트워크에서 이들 유형이 차별화되는 데, 서로 관계가 있으며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하였다[45].

2.1 결속형(bonding) 사회자본

결속형 사회자본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즉, 친족과 친구, 지인들로 구성된 사회네트워크로, 이 자본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동원(mobilization)을 원활히 한다. 결속형 자본을 가진 경우 배경의 다양성은 낮지만 개인적인 연결성이 높아 강한 연계(strong tie)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집단 구성원들의 동질성의 축적으로 내부집단(in-group)의 구성원들은 동질적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 의존하고, 외부 집단(out-group)에 대한 적개심이나 단절로 정보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또 집단 내부의 비리나 부패를 감추기 쉽고, 배타적 집단주의나 자기민족 중심주의 등이 나타나는 단점을 갖고 있다[48].

2.2 가교형(bridging) 사회자본

가교형 사회자본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만들 때 발생한다. 가교형 사회자본으로 형성된 조직은 인종, 성별, 직업, 소득, 신념, 종교 등이 다른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장벽을 잇는 가교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정보와 자원을 쉽게 획득할 수 있고, 넓은 안목과 세계관을 갖는 데 유리하며,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가교형 사회자본은 조직의 구성원들 간 상호 의존도가 낮고, 공통성이 적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약한 연계(weak tie)를 가지게 되어, 실제 상황에서 정서적이나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48].

2.3 결속형, 가교형 사회자본과 온라인 사회관계

결속형 사회자본은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배타적 집단주의나 자기 민족 중심주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리나 부패 등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문제를 가진다[49]. 이에, 학자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관계인 가교형 사회자본을 대안으로 제안했는데, 방

법으로 블로그, SNS, 메신저, 채팅, 이메일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토론과 사회참여를 제안하였다[50].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의 한 부류는 인터넷이 가교형(bridging) 사회자본과 약한 연계(weak ti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51]. 소셜 미디어는 약한 연계(weak tie)의 유지에 적합하기 때문에[52]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가교형 사회자본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으며[51][53] 결속형 사회자본과 강한 연계의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다[54]. 반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에 비해 결속형(bonding) 사회자본과 강한 연계(strong tie) 네트워크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 결속형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55]. 즉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관계 형성과 더불어 기존의 결속형 사회자본과의 연계유지에 활용되는데[56], 주된 기능으로 기존 사회관계를 활성화하고 강화시킨 뿐 아니라 자신의 관계를 가시화(visible)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연계된 사람들, 즉 이미 알고 있는 친구나 지인과의 잠재적 관계(latent tie)를 발전시키는 결속형 사회자본의 기능이 강하다고 하겠다[57][58]. 한편,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의 이용은 결속형, 가교형 사회자본 모두의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59][60]. 이처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사회관계는 오프라인 관계보다 쉽고 큰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다수의 약한 유대(Weak-tie)를 증가시키고 유지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3. 노년기 우울과 온라인 사회관계

노년기의 사회관계는 노인의 생존, 특히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61][62]. 은퇴, 배우자 또는 가까운 이의 상실로 인한 사회·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사회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여성노인은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며[63] 유배우 노인은 자녀·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가 적을수록[64] 사회적 접촉빈도가 낮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할수록[30] 우울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동반경과 사회적인 관계가 제한을 받는 노년기에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소통한다면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계층보다도 온라인 서비스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4].

인터넷 중간수준의 이용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새롭게 형성된 피상적이고 약한 관계(weak tie)가 오프라인의 의미 있고 강한 관계(strong tie)를 대체하면서 외로움, 우울증상,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대한 체감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결과가 일부 보고되기도 한다[65]. 그러나 온라인은 노인에게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며[66], 정보습득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67].

온라인 사회관계는 노인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 노인 2,075명에 대한 종단연구 결과 인터넷 사용자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비사용자보다 33% 낮았고, 이미 우울증에 걸린 노인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고립감과 우울증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68]. Furlong[69]은 인터넷 사용이 노인들에게 여가, 재정, 건강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서 노년기 고독이나 소외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하였다.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증상이 있는 집단의 경우 결속형 사회자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관계형성에 대한 사회자본의 논의를 온라인 사회관계(결속형, 가교형)로 규정하고 노인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검토 결과 우울은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생활스트레스, 온라인 사회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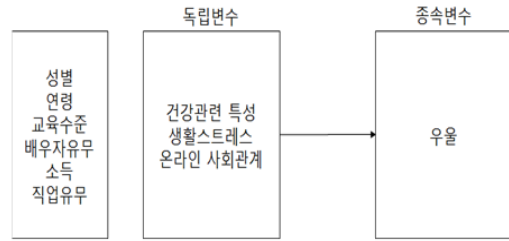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2. 측정도구

2.1 우울(SGDS-K 척도)

Yesavage 등[69]이 개발한 우울 측정도구 SGDS (Short-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배재남[70]이 표준화시킨 한국어판 SGDS-K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다른 검사와의 일치성이 있으며, 우울과 상관없이도 나타날 수 있는 신체 증상의 문항들을 제외해 도구의 타당도가 높으며, 검사항목도 15개로 문항수가 적고 간편한 측정이 가능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예” 0점, “아니오” 1점을 주었다. 점수 범위는 0점~15점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평가는 5점 미만은 정상, 5~9점은 우울가능성, 10점 이상은 우울증으로 해석된다[7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81$ 로 나타났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정의 및 측정
우울	합산한 값: 5점- 정상 5~9점 우울가능성 10점+ 우울증
인구사회학적인	
성별*	여성, 남성(기준변수)
연령	만 나이
배우자유무*	있음, 없음(기준변수)
교육수준	교육연수
소득	월 소득의 총액
직업유무*	있음, 없음(기준변수)
건강관련 변수	
만성통증유무*	있음, 없음(기준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1-5점(매우 좋음)
생활스트레스	0-5점, 점수가 높을수록 높음
온라인 사회관계	
결속형	10-40점, 점수가 높을수록 높음
가교형	10-40점, 점수가 높을수록 높음

* 성별, 결혼상태(배우자유무), 직업유무, 만성통증유무 등은 dummy variable로 변환하였음.

2.2 온라인 사회관계

Williams[54]의 사회자본척도(On and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를 사용했다. 온라인 사회자본 척도는 결속형과 가교형의 10개 항목으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2.2.1 결속형(bonding)사회자본 하위항목

결속형(bonding)은 가족이나 손자, 친척, 친구처럼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밀착정도를 나타낸다. 정서적 지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부족하고 제한된 자원은 연대를 통해 동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윌리엄스가 사용한 결속형 사회자본 20개 문항 중에서 10개 항목을 추출해 사용했다. 결속형의 하위항목은 (1)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4개 문항 (2) 부족하거나 한정된 자원에 대한 접근(access to scarce or limited resources) 3개 문항 (3) 연대 동원 능력(ability to mobilize solidarity) 2개 문항 (4) 외부집단에 대한 적대감(out-group antagonism)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 9번 문항은 역산처리하였다.

표 2. 결속형 사회자본 하위항목과 문항

결속형 사회자본 하위항목	결속형 사회자본 문항
1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내 문제를 도와 줄 수 있는 지인이 있다
2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조언해 줄 수 있는 지인이 있다.
3*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4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외로울 때 찾아갈 사람이 있다.
5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갑자기 50만 원을 꾸어야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6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나의 평판에 대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7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8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마지막 남은 한 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9*	온라인으로 만난 지인들 중에, 나한테 중요한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다.
10	온라인으로 만난 지인들이 내가 불의에 대항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 역산

2.2.2 가교형(bridging) 사회자본

가교형(bridging)은 외부 자원 및 정보확산을 위해

맺어진 일시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연결 등이 이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윌리엄스가 사용한 가교형 사회자본 20개 문항 중에서 10개 항목을 추출해 사용했다. 가교형의 하위항목은 (1) 외부탐색(outward looking) 2개 문항 (2) 다양한 타인과의 접촉(contact with a broad range of people) 2개 문항 (3) 더 넓은 집단의 일부로서 자신 보기(a view of oneself as part of a broader group) 3개 문항 (4) 더 넓은 공동체와의 상호교류 확산(diffuse reciprocity with a broader community)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결속형 Cronbach $\alpha=.859$, 가교형 Cronbach $\alpha=.969$ 로 나타났다.

표 3. 가교형 사회자본 하위항목과 문항

가교형 사회자본 하위항목	가교형 사회자본 문항
1	온라인으로 만난 지인들을 통해 우리 동네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2	온라인으로 만난 지인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된다.
3	온라인으로 만난 지인들을 통해 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게 된다.
4	온라인으로 만난 지인들을 통해 외국인의 삶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된다.
5	온라인으로 만난 지인들을 통해 내가 지구인이라고 느끼게 된다.
6	온라인으로 만난 지인들을 통해 나는 보다 큰 그림을 보게 된다.
7	온라인으로 만난 지인들을 통해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된다.
8	나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 시간을 쓰겠다.
9	온라인을 통해 타인과 대화하게 된다.
10	온라인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늘 연락하고 산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신뢰도 검사와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기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 F-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노인복지관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컴퓨터기초, 스마트폰, 인터넷반)에 참여한 60세 이상의 노인 144명이다. 성별은 남성 63명(43.8%), 여성 81명(56.3%)이며, 평균연령은 71.59세(SD=5.242)이다. 교육수준은 전문대학졸업 이상자가 64명(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97명으로 68.3%를 차지하였다. 소득은 월평균 120.29만원(SD=140.719)이며, 직업이 없는 노인이 103명(79.8%)이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성	63	43.8
	여성	81	56.3
연령	60-65세	23	16.0
	66-70세	36	25.0
	71-75세	53	36.8
	76-80세	28	19.4
	81세 이상	4	2.8
교육수준	무학	7	4.9
	초등학교졸업	34	23.8
	중학교졸업	29	20.3
	고등학교졸업	9	6.3
	전문대학졸업 이상	64	44.8
결혼상태	기혼	97	68.3
	사별 및 이산가족	38	26.8
	이혼	3	2.1
	미혼	4	2.8
소득	30만원 이하	18	19.4
	31-50만원	25	26.9
	51-100만원	21	22.6
	101-250만원	17	18.3
	251만원 이상	12	12.9
직업유무	있음	26	20.2
	없음	103	79.8

2. 연구변수와 우울의 상관관계 및 직접 영향 분석

2.1 연구변수와 우울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온라인 사회관계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 간의 관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생활스트레스 및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생활스트레스가 적으며 우울의 정도가 낮다.

또한 생활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즉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결속형 및 가교형 온라인 사회관계는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노인의 우울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온라인 사회관계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온라인 사회관계와 우울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생활 스트레스	온라인 사회관계		우울
				결속형	가교형	
주관적 건강상태		1				
생활 스트레스		-.172**	1			
온라인 사회관계	결속형	.007	.055	1		
	가교형	-.063	.014	.759**	1	
우울		-.414**	.477**	-.146**	-.099	1

** $p < .01$, * $p < .05$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 F값	p-value
성별	남성	5.14	3.58	-.0776	.438
	여성	4.83	3.27		
연령	65세 이하	4.25	2.91	1.014	.400
	66-70세	4.86	3.51		
	71-75세	5.14	3.44		
	75-80세	5.44	3.76		
	81세 이상	5.44	2.60		
배우자 유무	있음	4.49	3.21	-3.481	.001
	없음	5.94	3.59		
교육수준	무학	7.57	2.98	2.369	.053
	초등학교졸업	5.06	3.40		
	중학교졸업	4.89	3.41		
	고등학교졸업	4.32	3.22		
	전문대졸 이상	4.79	3.41		
소득	30만원 이하	6.97	3.30	3.292	.012
	31-50만원	4.98	3.51		
	51-100만원	4.92	3.35		
	101-250만원	4.34	3.01		
	251만원 이상	5.00	3.64		
직업 유무	있음	4.18	3.08	-2.083	.038
	없음	5.24	3.49		

2.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우울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 유무, 소득, 직업 유무는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우울이 높으며($t=-3.481, p=.001$), 소득에 따라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3.292, p=.012$), 30만원 이하인 노인은 소득이 101~250만원인 노인보다 우울이 높다(평균차이=2.63). 또한 직업이 없는 노인은 직업이 있는 노인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t=-2.083, p=.038$).

3.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두고, 건강관련 변수, 생활스트레스, 온라인 사회관계의 순으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값은 1.873~2.083으로 오차항 간의 독립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37~3.215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

표 7-1.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구분	Model I			Model II		
	B(s.e.)	β	t	B(s.e.)	β	t
일반적 특성						
성별(기준변수: 남성)	-.782(.535)	-.114	-1.460	-.902(.476)	-.131	-1.894
연령	.320(.260)	.090	1.231	.370(.230)	.104	1.607
교육수준	-.140(.139)	-.075	-1.008	-.143(.123)	-.076	-1.160
배우자유무(기준변수: 없음)	-1.277(.532)	-.182	-2.401*	-1.177(.471)	-.167	-2.500*
직업유무(기준변수: 없음)	-1.601(.575)	-.199	-2.787**	-1.331(.515)	-.165	-2.581*
소득	-.435(.189)	-.167	-2.300*	-.230(.172)	-.088	-1.337
건강관련 변수						
만성통증유무(기준변수: 없음)				1.071(.487)	.154	2.199*
주관적 건강상태				-1.300(.232)	-.380	-5.593***
상수			7.793***			10.254***
R^2 (adj. R^2)			.131(.101)			.332(.301)
F			4.428***			10.787***

* () : 각 변수의 준거집단, *** $p < .001$, ** $p < .01$, * $p < .05$

표 7-2.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구분	Model III			Model IV		
	B(s.e.)	β	t	B(s.e.)	β	t
일반적 특성						
성별(기준변수: 남성)	-.603(.449)	-.088	-1.342	-.507(.449)	-.073	-1.129
연령	.302(.216)	.086	1.402	.192(.218)	.054	.883
교육수준	-.209(.116)	-.110	-1.799	-.107(.123)	-.055	-.875
배우자유무(기준변수: 없음)	-.824(.447)	-.117	-1.845	-.6.3(.448)	-.085	-1.345
직업유무(기준변수: 없음)	-1.053(.485)	-.130	-2.170*	-.960(.492)	-.116	-1.949
소득	-.102(.163)	-.039	-.627	.051(.167)	.019	.308
건강관련 변수						
만성통증유무(기준변수: 없음)	1.019(.456)	.147	2.234*	.964(.466)	.138	2.067*
주관적 건강상태	-1.115(.220)	-.327	-5.063***	-1.039(.220)	-.307	-4.729***
생활스트레스	1.009(.200)	.314	5.035***	1.189(.204)	.366	5.824***
온라인 사회관계						
결속형				-.184(.071)	-.264	-2.605*
가교형				.032(.047)	.070	.679
상수			8.059***			9.951***
R^2 (adj. R^2)			.420(.390)			.462(.425)
F			13.846***			12.645***

* () : 각 변수의 준거집단, *** $p < .001$, ** $p < .01$, * $p < .05$

생하지 않았다.

모델 I 은 노인의 일반적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배우자 유무, 직업유무, 소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우울이 1.277 높으며($t=-2.401, p=.017$), 직업이 없는 노인은 직업이 있는 노인에 비해 우울이 1.601 높다($t=-2.787, p=.006$).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을 낮다($t=-2.300, p=.023$). 회귀식의 적합도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고($F=4.428$) 전체 변량의 10.1%를 설명한다.

모델 II는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변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일반적 특성 중 배우자 유무, 직업유무와 건강관련 변수인 만성통증유무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없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우울이 1.177 높으며($t=-2.500, p=.013$), 직업이 없는 노인은 직업이 있는 노인에 비해 우울이 1.331 높다($t=-2.581, p=.011$). 또한 만성통증이 있는 노인은 만성통증이 없는 노인에 비해 우울이 1.071 높으며($t=-2.199, p=.029$), 주관적 건강상태는 1단위 증가할 때 우울이 1.300 낮아진다($t=-5.593, p=.000$). 회귀식의 적합도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하고($F=10.787$) 전체 변량의 30.1%를 설명한다.

모델 III은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변수와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일반적 특성 중 직업유무와 건강관련 변수인 만성통증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노인은 직업이 있는 노인에 비해 우울이 1.053 높다($t=-2.170, p=.031$). 건강과 관련해서는 만성통증이 있는 노인은 만성통증이 없는 노인에 비해 우울이 1.019 높으며($t=2.234, p=.027$), 주관적 건강상태는 1단위 증가할 때 우울이 1.115 낮아진다($t=-5.063, p=.000$). 그리고 생활스트레스는 1단위 증가할 때 우울은 1.009 높아진다($t=5.035, p=.000$). 회귀식의 적합도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하고($F=13.846$) 전체변량의 39.0%를 설명한다.

모델 IV은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변수, 생활스트레스와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건강관련 변수인 만성통증유무와 주관적 건강상

태, 생활스트레스, 그리고 결속형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관련해서 만성통증이 있는 노인은 만성통증이 없는 노인에 비해 우울이 0.964 높으며($t=2.067, p=.040$), 주관적 건강상태는 1단위 증가할 때 우울이 1.039 낮아진다($t=-4.729, p=.000$). 생활스트레스는 1단위 증가할 때 우울은 1.189 높아진다($t=5.824, p=.000$). 결속형 온라인 사회관계는 1단위 증가할 때 우울이 .184 낮아진다($t=-2.605, p=.010$). 회귀식의 적합도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하고($F=12.645$) 전체변량의 42.5%를 설명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지역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은 60세 이상의 노인 144명으로,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수와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생활스트레스 및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생활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어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결속형 및 가교형 온라인 사회관계는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으면 우울이 낮다는 연구결과[38][40] 및 인터넷 사용자의 우울증이 비 이용자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68]와 일치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과 우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우울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배우자 유무, 소득, 직업 유무에 따라 우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없는 노인, 소득이 낮은 노인, 직업이 없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이 높다. 이는 배우자 유무[9], 배우자 사별 여부[30]에 따라 우울이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성별, 연령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불일치하였다.

셋째, 노인의 결속형 및 가교형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의 결속형 온라인 사회관계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교형 온라인 사회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결속형 온라인 사회관계가 1단위 증가할 때 우울이 .176 낮아졌다($t=-2.473, p=.015$). 건강관련 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 생활스트레스, 그리고 결속형 온라인 사회관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만성통증이 있을수록, 주관적 건강이 낮을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는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노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친구나 지인과 소통함으로써 결속형 사회관계가 증가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58], 인터넷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에 비해 결속형 사회자본과 강한 연계(strong tie) 네트워크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 결속형 사회관계의 도움을 받는 경향도 높다는 Biase 외[55]의 연구로 설명이 된다. 즉 노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기존의 사회관계를 강화하고 가시화 시킴으로써[56] 이미 알고 있는 친구나 지인과의 잠재적 관계(latent tie)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결속형 온라인 관계를 더 선호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57].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더 큰 세계나 낯선 대상과의 접촉에 대한 부담, 문자로 소통해야 하는 SNS의 특성과 영어 문제,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한계로 가교형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는 부족하거나 한정된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조언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 집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결속형에 노인의 온라인사회관계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우울감소를 위한 IT활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온라인 사회관계는 오프라인 관계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기존의 결속형 온라인 사회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신체적 기능의 감퇴와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

게 되는 노인들에게 IT활용은 단절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업체가 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어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서비스를 기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는 결속형 사회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IT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교육한다면 지역사회 내 장·노년층의 우울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73].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인터넷 사용이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SNS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우울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로 진학하는 미국 대학생들에게서 결속형 사회관계의 약화로 사회자본과 사회적 지지가 일시적으로 낮아졌는데[74] 이때 온라인 사회관계가 기존의 결속형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75]. 최근 가족해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화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온라인 결속형 사회관계의 강화를 통해 우울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T교육은 활용중심의 반복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관 및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IT교육도 컴퓨터 이론과 활용법에서 탈피해 스마트폰 활용 주의사항, 스미싱이나 피싱 대처법 등 실제 활용 중심의 눈높이 반복교육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사물인터넷의 출시와 스마트 환경 증가로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활용 가능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정보소외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신체·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면대면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TV와 달리 쌍방향 소통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사회관계의 기본은 인관관계의 매너와 의사소통 능력의 확보이다. 바른 온라인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면대면 관계에서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형성

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친지나 친구의 이주나 사망으로 결속형 사회관계가 축소되는 노년기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이 대상이 되며, 지역 내 촘촘한 사회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우울과 생활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대안이 될 것이다.

끝으로 온라인 사회관계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온라인 사회관계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어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5]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한 유대(strong tie)를 통해 개인 및 지역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참여와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장을 온·오프라인에 마련하는 것도 지역사회의 역할 중 하나라 하겠다.

본 연구는 기존 중장년에 치우친 연구와 달리 모집단을 60세 이상으로 조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복지관과 지역사회복지관 이용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온라인 사회관계가 노인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지역 사회 내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실천적인 함의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http://www.kisa.or.kr>
- [2] 이복자, 명승환, “노인의 정보화인식과 인터넷활용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3권, 제4호, pp.151-179, 2010.
- [3] <http://www.nia.or.kr>
- [4] Y. Chen and A. Persson, “Internet use among young and older adults: Relation to psychological well-being,” Educational Gerontology, Vol.28, pp.731-744, 2002.
- [5] 장미옥,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후의 만족이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성인교육학회, 제7권, 제3호, pp.133-154, 2004.
- [6] 황은희, 신수진, 정덕유, “노인의 인터넷 사용 실태,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5권, 제1호, pp.118-128, 2011.
- [7] 정민숙, 이유리, “정보화교육 참여노인의 인터넷 활용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Andragogy Today, 제15권, 제1호, pp.63-85, 2012.
- [8] 유용식, 손호중, “인터넷활용과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235-244, 2012.
- [9] 김동배, 김상범, 김세진, “서울지역 장·노년층의 인터넷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사회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1권, 제3호, pp.733-749, 2011.
- [10] 손연기, “노인복지에 있어서 정보화의 역할,” 노인복지연구, 제8권, 제1호, pp.7-29, 2000.
- [11] S. Sum, R. Mathews, L. Haghese, and A. Campbell, “Internet use and loneliness in order adults,”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Vol.1, No.2, pp.208-211, 2008.
- [12] 고상민, 황보환, 지용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사회적 자본: 한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04-117, 2010.
- [13] 이해인, 배영, “스마트폰 이용과 사회자본: 스마트폰 이용동기와 이용정도가 사회자본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보화 사회, 제21권, pp.35-71, 2011.
- [14] P. Norris, “The bridging and bonding role of online communities,” Press/Politics, Vol.7, No.3, pp.3-13, 2002.
- [15] 김희조,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참여적 사회자본: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연결적 VS 결속적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5호, pp.9-46, 2010.
- [16] 윤성준,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관한 네트워크적 접근: Bonding vs. Bridging,” e-비즈니스연구, 제14권, 제1호, pp.203-244, 2013.

- [17] 김재윤, 김정환, 김성철,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사회적 자본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7권, 제2호, pp.157-185, 2013.
- [18] 강승미, *우울증 진단을 위한 정신과 상담과 상담 권고에 대한 태도: 공격자아인식, 자기효능감, 사회 자본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9] R. Atchley, *Social Forces and Aging*,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 2014.
- [20] H. G. Keoning and Iii. D. G. Blazer, “Minor depression in late lif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4, No.4, pp.S14-S21.
- [21] R. L. Spitzer, K. Kroenke, and M. Linze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primary care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Results from the PRIME_MD 1000 Study,” *Psychosomatics*, Vol.37, No.2, p.169, 1996.
- [22] Battl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 Vol.42, No.3, pp.745-746, 1978.
- [23] 이묘숙, “노인의 우울수준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및 생활만족도 조절효과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9권, pp.241-266, 2010.
- [24] 이금자, 이현지, “노인 코흐트에 따른 삶의 질 결정요인,” 노인복지연구, 제41권, pp.159-182, 2008.
- [25] 박정아, 조영채, “한 보건기관에 내원한 기초생활수급노인과 비수급 노인의 우울 및 인지기능 상태 비교,” 농촌의학: 지역보건, 제32권, 제1호, pp.1-12, 2007.
- [26] M. Serby and M. Yu, “Overview: Depression in the Elderly,” *Mount Sinai Journal of Medicine*, 제70권, 제1호, pp.1-10, 2003.
- [27] 김동배, 김상범, 신수민,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 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32권, 제1호, pp.289-303, 2012.
- [28] 정순달, 구미정, “우울 영향요인: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현재노인의 비교,” 한국노년복지학회, 제37권, 제1호, pp.305-324, 2011.
- [29] Y. Yang, “Is old depressing? Growth trajectories and cohort variations in late-life depression,” *Journal of Aging and Health*, Vol.24, No.1, pp.3-28, 2007.
- [30] 허준수, 유수현,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3권, pp.7-35, 2002.
- [31] 권태연, “노년기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 집단의 스트레스 요인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1호, pp.163-197, 2009.
- [32] 이혜경, 이병록,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지지와 일상생활가능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8권, pp.201-225, 2011.
- [33] J. F. Huang, R. H. Wong, C. C. Chen, I. F. Mao, C. C. Huang, W. H. Chang, and L. Wang, “Trajectory of depression symptoms and related factors in later life: A population based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Vol.133, pp.499-508, 2011.
- [34] 이현지, “제가 노인이 경험하는 고립과 외로움이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통제감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2권, pp.157-177, 2012.
- [35] 임중철, 주경희, 임병우, “노인의 일자리참여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7권, pp.29-50, 2012.
- [36] 김정선, “가정노인과 양로원 노인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활동능력,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28권, 제1호, pp.148-158, 1998.
- [37] 이미숙, “노인과 건강-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노인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pp.196-229, 1999.
- [38] 김원경,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증간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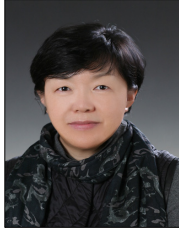
- 계: 구조적 및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0권, 제1호, pp.49-66, 2001.
- [39] 김주희, 김정현, “노인 우울척도를 이용한 노인의 우울성향과 근골격계 만성동통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18권, 제3호, pp.90-102, 1998.
- [40] 김오남, “농촌노인의 건강수준,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8권, 제2호, pp.5-22, 2003.
- [41] 권영은, 하진, 안수연, “재가노인의 지각된 건강 상태, 일상생활수행정도 및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7권, 제2호, pp.335-343, 2007.
- [42] 윤명숙, 김성혜, 채완순, “노인의 음주 및 정신건강 특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 과학회지, 제11권, 제1호, pp.27-44, 2010.
- [43] 장미희, 김윤희,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 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pp.33-42, 2005.
- [44] T. Ryberg and M. C. Larsen, “Networked identities : understanding relationships between strong and weak ties in networked environments,” J. Comput. Assisted Learn, Vol.2, pp.103-115, 2008.
- [45] R.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ymon and Schuster, 2000.
- [46] P.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G.(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1986.
- [47] J. Coleman,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48] X. S. Briggs, “Social Capital oh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No.95-120, 1989.
- [49] B. Edwards and M. W. Foley, “Civil society and social capital beyond Putnam,”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42, No.1, pp.124-139, 1998.
- [50] 김은미, 선유화, “댓글에 대한 노출이 뉴스 수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4호, pp.33-64, 2006.
- [51] N. Ellison, R. Heino, and J. Gibbs, “Managing impressions online: Self presentation processes in the online dating environment,”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Vol.11, No.2, pp.415-441, 2006.
- [52] J. Donath and D. Boyd, “Public displays of connection,” bt technology Journal, Vol.22, No.4, pp.71-82, 2004.
- [53] B. Wellman, A. Q. Haase, J. Witte, and K. Hampton,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mmit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45, No.3, pp.436-455, 2001.
- [54] D. Williams, “On and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1, pp.593-628, 2006.
- [55] J. Boase, J. B. Horrigan, B. Wellman, and L. Rainie, “The strength of Internet ties: The Internet and e-mail aid users in maintaining their social networks and provide pathways to help when people face big decisions,” Washington, DC: The Pew Internet and American Life Project. Retrieved on June, Vol.22, 2007.
- [56] N. B. Ellison, C. Steinfield, and C. Lampe,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1]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Vol.12, No.4, pp.1143-1168, 2007.
- [57] Haythornthwaite, “Social networks and Internet connectivity effects,” Information, Community &

- Society, Vol.8, No.2, pp.125-147, 2005.
- [58] 김희조, “소셜 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 소셜 미디어 이용이 사회 자본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제25권, 제5호, pp.7-48, 2011.
- [59] 김봉섭, “블로그 이용에 따른 사회적 연결망 유형과 사회자본 효과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0권 제2호, pp.73-104, 2010.
- [60] 심홍진, 황유선, “마이크로 블로깅(micro-blogging)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 : 트위터(twitter)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4호, 제2권, pp.192-234, 2010.
- [61] H. Litwin, “Social network type and morale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Vol.41, No.4, pp.516-524, 2001.
- [62] 임소영, 강민아, 조성일, “한국 노인의 사회관계망 유형과 건강상태의 관계: 남녀집단별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59권, pp.281-308, 2013.
- [63] 탁영란, 김순애, 이봉숙, “여성 노인의 사회적 지지 및 도구적 지지요구와 우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9권, 제4호, pp.449-456, 2003.
- [64] 남철현, 김병하, “유배우 노인의 우울정도와 관련요인분석연구,” 한국노년학, 제19권, 제2호, pp.173-192, 1999.
- [65] S. E. Caplan, “Preference for online social interaction a theory of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psychosocial well-being,” *Communication Research*, Vol.30, No.6, pp.625-648, 2003.
- [66] 신용주, “정보화교육을 통한 노인 임파워먼트의 모색,” 평생교육학연구, 제11권, 제4호, pp.33-53, 2005.
- [67] H. White, E. McConnell, E. Clipp, L. Bynum, and C. Teague, “Surfing the Net in later lif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pilot study and computer us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18, No.3, pp.358-378, 1999.
- [68] S. R. Cotten, G. Ford, S. Ford, and T. M. Hale, “Internet use and depression among retired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 longitudinal analysi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Vol.69, No.5, pp.763-771, 2014.
- [69] J. A. Yesavage, T. L. Brunk, O. Rose, V. Lum, M. Huang, and M. Ade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y Res*, Vol.17, pp.37-49, 1983.
- [70] 배제남, *DSM-III-R 주요우울증에 대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의 진단 정확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 [71] M. S. Furlong, “An electronic community for older adults: The senior Net network,” *Journal of Communication*, Vol.39, No.3, pp.145-153, 1989.
- [72] 한국노인상담연구소(김은주, 주경희, 구효향, 김준화, 이윤호, 조세희), *노인심리척도집*, 서울: 학지사, 2009.
- [73] 구자순, “고령층의 온라인 공동체 활동에 관한 연구: 남성과 여성간 차이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6권, pp.241-272, 2005.
- [74] E. Paul and S. Brier, “Friendsickness in the transition to college: Precollege predictors and college adjustment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JCD*, Vol.79, No.1, pp.77, 2001.
- [75] J. Cummings, J. Lee, and R. Kraut,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friendship during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Computers, phones, and the Internet: Domesticating information technology*, pp.265-278, 2006.

저 자 소 개

윤 현 숙(Hyunsook Yoon)

정회원



- 1985년 8월 :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 199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1987년 3월 ~ 현재 : 한림대학교

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학, 의료 및 정신보건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실천이론

이 은 경(Othelia Lee)

정회원



- 1988년 8월 : Smith College (MSW)
- 2000년 5월 : Columbia University(Ph. D)
- 2000년 9월 ~ 현재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School of Social Work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범 경 아(Kyoungah Beu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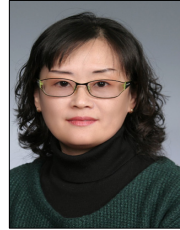


- 2010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6년 2월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김 영 자(Yeongja Gim)

정회원



- 2008년 7월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3년 2월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2013년 7월 ~ 현재 : 사회적 협동조합 EIF KOREA 이사장

<관심분야> : 사회복지학, 가정폭력, 국제개발협력